

오 지 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지 혜

교내·외 음악 활동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 지 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지 혜

# 인 준 서

장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활동이 음악 성취도와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 부분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 교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의 흥미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 교과의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B'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음악경험에 대한 설문지, 흥미도검사지, 교내에서 실시한 1학기 '가창1', '가창2', '기악', '학습과정(태도)'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 성적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음악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창1, 가창2, 기악, 학습과정(태도)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받았으며 흥미도의 모든 영역에서도 경험이 있는 집단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흥미도가 높을 수록 성취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형을 설문한 결과 개인 교습 및 학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음악 활동은 방과후활동이 가장 많았다.

셋째,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지필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성취도평가(가창1, 가창2, 기악, 학습과정)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활동의 기간이 길

수록 학습과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 중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53%로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음악 활동을 계속 유지 하고 싶다고 답변한 학생은 56.7%로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하다 보니 흥미를 느껴서’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 경험이 성취도 및 흥미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음악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흥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경험의 장을 열어주어야 하며 흥미를 충족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법, 교재 등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취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4
4. 용어정리 .....	4
II. 이론적 배경 .....	7
1. 청소년기 음악 활동의 중요성 .....	7
2. 음악교육에서의 성취 및 흥미 .....	16
3. 선행 연구 고찰 .....	2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30
1. 연구 대상 .....	30
2. 연구 도구 .....	30
3. 연구 절차 .....	31
4. 연구 방법 및 분석 .....	32

IV. 연구 결과 .....	34
1. 기초 자료 분석 .....	34
2.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	54
3. 음악 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의 상관관계 .....	66
4. 음악 흥미도와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	70
V. 결론 및 제언 .....	7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Ⅲ-1> 음악 흥미 검사지의 항목별 문항번호 .....	31
<표Ⅳ-1>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	34
<표Ⅳ-2> 음악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	35
<표Ⅳ-3> 음악 활동 유형별 활동 기간 .....	36
<표Ⅳ-4> 계발 활동 경험의 종류 .....	37
<표Ⅳ-5> 방과후활동 경험의 종류 .....	39
<표Ⅳ-6>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	40
<표Ⅳ-7> 종교단체활동 및 기타 경험의 종류 .....	41
<표Ⅳ-8> 유형별 음악 활동진행 여부 .....	43
<표Ⅳ-9> 경험 유무와 음악 학업성취도의 관계 .....	54
<표Ⅳ-10> 음악 활동 유무와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	55
<표Ⅳ-11>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	57
<표Ⅳ-12> 음악 활동 기간합과 음악 학업성취도 상관관계 .....	58
<표Ⅳ-13>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	59
<표Ⅳ-14> 음악 활동 기간과 음악 교과 영역별 수행성취도 상관관계 ..	61
<표Ⅳ-15> 음악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	62
<표Ⅳ-16> 음악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	63
<표Ⅳ-17> 음악 활동 유무에 따른 흥미도 영역별 차이 검증 .....	66
<표Ⅳ-18>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흥미도의 상관관계 .....	68
<표Ⅳ-19> 음악 흥미도와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	70

## 그림 목 차

<그림 IV-1>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	36
<그림 IV-2> 계발 활동 경험의 종류 .....	38
<그림 IV-3> 방과후활동 경험의 종류 .....	39
<그림 IV-4>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	40
<그림 IV-5> 종교단체활동 및 기타 경험의 종류 .....	41
<그림 IV-6> 음악 활동 유형별 진행 여부 .....	42
<그림 IV-7> 음악 활동 유지 이유 .....	44
<그림 IV-8> 음악 활동 그만둔 이유 .....	45
<그림 IV-9> 음악 활동 앞으로 진행 희망 여부 .....	46
<그림 IV-10> 앞으로의 음악활동 지속 희망 이유 .....	47
<그림 IV-11>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48
<그림 IV-12> 음악 활동 무경험 집단 중 음악 활동 희망 여부 .....	49
<그림 IV-13> 기회가 된다면 음악활동을 희망하는 이유 .....	50
<그림 IV-14> 음악 수업 흥미 영역 1순위 .....	51
<그림 IV-15> 음악 수업 흥미 영역 2순위 .....	52
<그림 IV-16> 음악 수업 흥미 영역 3순위 .....	52
<그림 IV-17> 음악 활동이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 .....	53
<그림 IV-18>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흥미도의 상관관계 .....	69

## 부 록

<부록 1> 음악 활동 설문지

<부록 2> 음악 흥미도 검사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게 되며 누구도 음악을 낯선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음악이 언어가 발달하기 그 이전부터 생존을 위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 되기 시작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등 음악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음악이 인간의 마음, 육체, 영혼에 깊이 관련하여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정신적 안정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교육적 가치 그 이상이라고 믿었으며 때문에 음악교육의 목적도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발달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박인애, 2010). 이처럼 음악은 시대 뿐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이며 교육에 있어 음악은 바람직한 음악적 체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창의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체험적인 음악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음악교육의 본질은 크게 음악의 체험과 음악적 능력의 향상, 음악적 심성의 계발로 집약되는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작품을 심미적으로 다루게 하고 의미 있는 음악적 배움을 통해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줄 것을 요구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에서는 “오늘날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

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sup>1)</sup> 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는 음악교과가 노래만을 가르치는 교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악곡과 활동들을 심미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인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고 음악적인 심성을 계발시켜 충실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과이기를 기대한다.

음악교육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음악 경험 및 음악 활동의 중요성은 엘리엇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는데 엘리엇(D. J. Elliott)은 ‘행위’는 인간의 모든 의식이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체라고 전제한다. 즉 음악은 ‘음악 작품’이 아니라 ‘음악 행위’이며, 음악의 궁극적인 실체는 음악 작품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sup>2)</sup> 라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직접 경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의 음악 수업 뿐 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계발활동, 종교단체나 동아리활동과 사교육 등 다양하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음악 활동이 과연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나타내는가이다.

학습에 있어서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정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끄는 것으로 학습의 목표달성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학습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 하도록 하는 촉진제이다. 또한 흥미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적 경험과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학습 효과는 일련의 학습 과정과 이와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

---

1)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교육과정해설서IV』. p.138-139.

2) 권덕원 외 3인(2009).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p.81.

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 활동의 경험이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각 부분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연구 문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 교과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의 흥미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음악 교과의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 항목들에 대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각 질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각 부분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한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1개교의 1학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지역과 학년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흥미도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표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 4. 용어정리

#### 1) 교내 음악활동

##### (1) 계발활동

종래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으로 학교 단위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학교단위가 결정, 운영하는 교육활동<sup>3)</sup>으로 흥미, 취미, 소질,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

---

3) 교육인적자원부 (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p.35.

과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이다.<sup>4)</sup>

이러한 집단 활동은 ‘클럽활동(C.A.)’이라 하기도 하였으나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활동’이라 하여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전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이러한 모든 활동을 ‘계발활동’이라 정한다.

## (2) 방과후학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과학습활동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개성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계발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 등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1954년에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목적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교과활동 또는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활동 또는 과정을 의미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의 방과 후 교실(초등),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추진 되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다.<sup>6)</sup>

4)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별활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 p. 293.

5)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p.3.

6)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afterschool.sen.go.kr/index.do>

## 2) 교외 음악활동

### (1)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의에 따르면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광의의 의미로는 과외수업과 학원교육 등과 같이 각종의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을 의미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공공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교육(정규 교육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이외의 사립학교 교육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취미와 여가 생활 뿐 아니라 학업 성취를 위한 학교 밖 즉, 개인지도, 음악학원, 문화센터 등에서 개인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사교육으로 포함하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을 포함하여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후학교, 교내 보충활동 등은 사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 (2) 사교육을 제외한 교외 음악활동

본 연구에서 사교육을 제외한 교외 음악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음악수업은 물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과 교외에서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받는 일체의 음악관련 수업을 제외하며 교회, 성당, 절 등과 같은 종교단체 및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음악동호회, 음악 동아리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음악활동의 중요성

#### 1) 청소년기의 이해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성숙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등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있으며 이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때에 청소년들은 좌절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격동의 시기, 과도기의 시기 등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도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릭슨(Erikson E.H.)은 그의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 Childhood and Society, 1963』에서 청소년기를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혼미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로 규정했으며 특별히 이 시기에는 친구, 급우들과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감, 직업, 전공에 대한 정체감 속에서 그 결정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보았으며 또한 역할 혼미 가운데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로 자아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발달하는데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주기 전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른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법에 따르면 14세부터 청소년의 범주로 보고 있다. 또한 미성숙의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의 연령은 소년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각각 18세 미만, 19세 미만까지를, 최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sup>7)</sup>

이처럼 청소년기의 범위가 다양하게 구분되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청소년은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양자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로 신체적인 면과 지적인 면 그리고 정서적인 면 모두에서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며 현재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안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로 볼 수 있다(설현진 2010). 때문에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자신의 위치에 대한 혼란 등으로 역할갈등과 번민을 겪게 된다.

이밖에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징으로 성인 집단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념, 감정, 포부, 이상 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성인 세대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세계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생활과 무한한 동경의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아를 확립하고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나 감정, 잠재능력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들의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나 경험 및 사고유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승복(2008)은 청소년기는 개인의 인지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신체적으

---

7) 청소년보호법(2009).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로도 급격한 외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성격 및 가치관의 정립, 학교 생활에의 적응, 학업에 대한 집중, 사회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등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정의되는 자아개념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관한 모든 지식을 고정시키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개인적 정체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에 자아개념은 자신의 경험 및 학습과 가족, 학교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며 청소년기에 새로이 정립되면서 인간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성격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진입해 가는 중간 단계로 정서적, 신체적, 감정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이며 사회적 범주가 불확실함에 따라 불안정한 심리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주변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시기로 학문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다양하게 개념화 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2) 청소년기 음악활동 양상

짐머만(M. Zimmerman)의 음악 발달단계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는 강한 또래 음악 문화가 형성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음악경험 가운데 대중음악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sup>8)</sup>로 만약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성취

---

8)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9 p. 115-116.

즉, 감성적, 지적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술 음악의 가치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비예술 음악에만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체험하고 깊은 예술적 감동의 순간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평생 동안 음악을 그의 가치 체계 속에 포함하고 살게 되며 비예술 음악의 사회적 기능까지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종류의 음악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의 노래가 존중되고 악곡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상과 연주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 문화권에 속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sup>9)</sup> 이라고 하였다.

교육과정에 고시된 음악 활동의 4가지 영역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서 학생 스스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은 바로 감상일 것이다.

음악 감상에 있어서 이수경(200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장르는 대중가요가 전체 74.8%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 외에서의 음악활동이나 연주회 참여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청소년들의 음악경험이 주로 듣기에 편중된 수동적인 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이 1시간미만의 응답자가 61.2%에 달하는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시간이 결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승미(2005)는 서울 시내 'E' 고등학교 여학생 69명과 'S' 고등학교 남학생 8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음악의 분위기, 음악선호도등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대중가요

---

9)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 79-80.

가 87명(56.8%)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POP과 락/헤비메탈 등이 각각 17명(1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클래식이나 국악과 같은 음악 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자극적인 음악에 익숙하고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크게 이해, 활동, 생활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음악의 생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배운 음악을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 시켜주는 음악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이전의 제 1차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지 못했던 생활화 영역이 활동중심의 음악활동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이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음악수업 이외에도 계발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을 통해 ‘1인 1악기’ 기회를 통해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도 사교육이나 종교단체, 민간음악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윤경(2009)은 서울소재 ‘A’ 고등학교의 1학년 남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음악활동 경험의 유경험자가 전체 275명 중 188명(68.4%)이었으며 이중 현재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전체 10.7%에 해당하는 19명,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33.3%로 소수에 불과했으며 원인은 음악과 관련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시에 대한 시간적인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라(2007)는 중·고등학생 1,259명을 대상으로 음악적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이상의 학생들이 음악을 위한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내·외, 동호회활동이 모두 5%미만, 종교단체를 통한 그룹 활동이 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음악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 뿐 만 아니라 그룹 활동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활동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즉, 청소년 시기로 접어들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음악 활동이 대중매체에 의존하여 단순한 오락적 역할에 치우쳐 있으며 흥미위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생활에서의 음악 활동과 학교음악교육과의 괴리, 대중산업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보다 풍부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음악적 필요들을 이해하며 음악에 대한 흥미와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얻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음악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감상하며 좋은 음악을 올바르게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음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음악문화에 대하여 성찰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음악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음악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이는 음악에 포함되는 변수들 예컨대 속도, 음량, 화음, 음색, 악기의 종류, 리듬, 멜로디, 형식 등은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감정 상태와 기분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정서 생활을 다스리고 인간성을 풍부하고 조화롭게 완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의 감화력은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예술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헨리히(Hinrich V.D.)는 청각은 인간의 모든 감각 중 가장 민감한 감각이고 우리의 정서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귀가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다루는 중심기관인 신경망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음악을 체험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능력과 체험 능력이 훈련되는데 이때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감정은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긴장과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하였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민의 40%가량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인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오르가니스트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빈민층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0여만 명의 음악가가 배출되었고 135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90여 개의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탄생시켰으며 국제

부대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엘 시스템아’는 단순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마약과 범죄의 유혹에 방치돼 있던 빈민층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는 사회 교육적 공헌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 각자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 엘 시스템을 통해 교육받은 200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출석률 향상과 비행건수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sup>10)</sup>

이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음악이 가지는 치유력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김지연(2008)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합주활동을 경험한 학생들과 합주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모두 음악을 접했을 때 ‘마음이 즐겁고 차분해진다.’ 라고 공통적인 대답이 가장 많았다. 차이점으로는 정서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합주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90%가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 등 긍정적인 정서가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천에 있는 관현악단의 하나인 YMCA 청소년 관현악단 단원의 1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주활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 무대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정서적 안정, 음악성 향상, 진로 결정, 즐거움, 활발해짐, 성실함과 책임감 향상, 사회성과 집중력 향상으로 만족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박지영(2002)은 합주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협동심, 책임감, 정서적 안정성, 음악적 흥미도, 음악 애호심, 가치 내면화에 대한 6가지 항목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6%~40.65%의 증가를 보였으며 합주부 지도 교사의 관찰에서 ‘합주부 아동들은 책임감이 강하다 66.7%’, ‘협동성과 사

---

10) 김종미(2009).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 빈민층 청소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음악의 힘』.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성이 높다 58.3%”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이밖에 ‘인화단결과 협동심을 길러준다 33.0%’,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갖게 한다 25.0%’, ‘정서 교육 및 인격 형성에 꼭 필요하다 41.7%’로 전체 교사 83.3%가 합주 활동을 권장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인성검사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합주부 학생은 사교성, 지배성, 자기 존중감, 성실성, 스트레스 인내력, 개방성의 6가지 성격 요인에서 T점수 9.87~14.01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김성희(2006)는 집단음악활동(즉흥연주활동, 악기연주활동, 음악 감상과 토론, 노랫말 짓기 등)이 학교부적응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한 결과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존중감, 정서안정성,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신뢰감, 충자기개념, 무작위반응의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식, 특이반응, 우울성, 히스테리성, 반사회성, 남성여성 성, 강박성과 내향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청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서에 있어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이 음악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은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주고 그것들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 우울증, 공격성향, 좌절감을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합주와 합창, 앙상블 등의 음악활동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서로 다른 역할을 이해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협동심, 우애심,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생활의 돌파구 내지는 안정을 찾

을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며 청소년들을 음악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음악교육에서의 성취 및 흥미

### 1) 음악교육에서의 성취

#### (1) 학업 성취의 개념

학업성취는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일련의 학습과제 및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으로써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학습 활동 결과의 한 부분이다.

학업성취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그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요소라는 공통된 면을 볼 수 있다.

이형득(1971)은 학업성취를 보통 학문적 교과목의 성적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업성취를 일정한 교과목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학습활동의 결과물로서 아동이 획득한 능력 및 행동경향의 기본적인 사항을 몸에 정착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학업성취란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명숙2004 재인용).

곽희선(1993)은 교육적 성과인 교육목표의 포괄적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측정하는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학교 수준에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학업성취는 단순한 교과 성적의 의미를 넘어서 벗어나 교수방법, 교과목의 목표, 교과의 내용, 교사특성, 학생의 지적능력, 학습자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 심리적 환경 등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학습 활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2) 성취의 교육적 필요성

교육이란 전적으로 지적 능력만 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지식만을 주입시킨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교육의 결과도 학습자에 대한 관심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교육결과는 학습자의 학습결과로서의 학업성취를 말하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 지적인 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습결과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업성취는 주로 지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는 학습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가정환경, 학급, 학교환경, 사회문화적 배경 등 환경적 요인과 지능, 성격, 학습동기 등 학습자 요인, 그리고 교수체계와 방법, 평가체제와 방법, 교재의 체제와 방법, 교과의 특성 등 교사와 관련된 변인 등으로 다양하다.<sup>11)</sup>

---

11) 서울대학교 연구소편(1981). 교육학 용어사전. p.613

### (3) 음악에서의 성취

음악성취는 음악을 통한 경험, 음악적 현상, 또는 음악과 관련된 자료들의 성과로서 음악의 완성 즉, 현재까지 학습된 결과물로서의 도착점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에서의 형식적인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 뿐 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시설에 의한 학습도 음악성취에 반영된다(백민재, 2004).

일반적으로 성취는 주로 두뇌 학습의 성과로 보지만 음악은 다양한 행위의 종합이므로 음악성취 역시 어떤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일과 라도시 (Bolye & Radocy, 1987)는 실기테스트, 음악적 지식 테스트, 악보 테스트, 청음 테스트, 감상 테스트, 창작 테스트 등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sup>12)</sup> 음악성취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은 다양한 평가 영역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객관식 검사, 실음지필검사, 실기검사, 서술검사, 구술검사, 기보검사 등의 방법이 있다. 교사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음악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sup>13)</sup> 이는 음악성취 평가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과 평가의 방법이 실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 성취는 음악의 본질인 소리를 바탕으로 학습하며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현경실(1994).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8집 2호. 인천 : 인천대학교 p.404.

13) 권던원 외 3인. 앞의 책. p.330-331

## 2) 음악교육에서의 흥미

### (1) 흥미의 개념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나름으로 좋아하는 활동 분야가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더 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더욱이 흥미란 그 속에 동기를 핵심적 요소로 지니고 있는 심리적 유인물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서는 아동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일이 곧 학습지도나 성격 발달에 첩경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황정규, 1973)

흥미의 의미를 살펴보면 ‘흥미(興味)’는 ‘흥을 느끼는 재미’ 또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흥미는 ‘어떤 사람이나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개인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 활동, 경험 등에 관심을 보이며 노력하고 추구하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흥미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행동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호기심이나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자발적 탐색활동으로서 개인적 특성이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는 내적 동기의 한 유형이다(박중길, 2008).

## (2) 흥미의 교육적 필요성

흥미를 교육적 입장에서 고찰한 바를 살펴보면 먼저 루소(J.J.Rousseau)는 아동의 흥미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여 흥미에 따라서 활동시킬 것을 권장하였으며 헤르바르트(J.F.Herbart)는 학습이 끝났을 때 그 일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흥미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듀이(J.Dewey)는 교육적인 의미로서 흥미란 학생과 학습 자료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학습활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수 학습이나 진로 지도와 같은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 뿐 만 아니라 흥미에 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강영하(2003)는 학습에서 흥미는 학습동기, 학업성취, 포부수준, 자아개념 형성에 크게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활동과 행동의 활발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도 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적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흥미는 개인의 행동수준 또는 강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구조이며 과정이므로 개인의 흥미를 강화시킴으로서 학습반응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또한 브룸(Bloom, 1971)은 학습에서의 흥미와 학업성적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흥미와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는 .20에서 .50의 상관이 있으며 학습할 과제에서 약 25%를 결정해 준다고 하였다. 이밖에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흥미와 검사된 학업성적과의 상관은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40의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학습 활동에 있어서 관심과 흥미가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

---

14) Edward J. Power, op. cit., p. 140; J. A. Akinpelu, op. cit., p. 151.

고 모험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구체적인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학습과정에는 능력 이외의 학습에 대한 흥미 또는 학습을 하려는 의욕이라고 불리는 동기 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용걸 역, 1977)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흥미를 계발하는 데도 개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흥미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활동의 시도를 통하여 계발될 수 있으며 흥미의 여부에 따라 노력의 방향과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여러 방면으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여겼다.

### (3) 음악에서의 흥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의 중요성은 어떠한 과목을 막론하고 중요한 요소이나 특히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다루는 음악 과목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음악에서의 정의적 영역은 음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기능적인 평가와 함께 음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바로 ‘음악 흥미’를 일컫는다. ‘음악흥미’란 음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음악활동에 참여하고 일관성 있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음악을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내면화 된 긍정적인 음악적 가치관과 애호심 등은 음악에 관한 정의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며 인지적 태도의 추상적 개념보다 수행태도가 증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한 영역으로 제시된 ‘생활화’를 살펴보면 음악을 즐기고 생활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가 없이는 효과적인 수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교 수업에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듀이(J.Dewey)는 음악교육의 목적은 기능적인 면의 습득이기보다는 음악에 친숙하게 하고 좋은 음악적 표현이나 감상에 적극적인 태도와 흥미를 갖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sup> 또한 여러 가지 학습 중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의 진리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주장한 만큼 학습에서의 흥미는 자발성을 유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흥미는 학습자가 음악이라는 대상에 자기를 동화 시킴으로써 더욱 증진되는 것으로 학습의 전이와 계속성이 현대교육학의 큰 관심 대상인 만큼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일생을 음악을 통해 즐길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음악 교육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학습동기와 흥미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음악에 대한 태도, 가치관의 정의적 영역에 비중을 두고 교사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박성애 2000)

---

15) 권던원 외 3인. 앞의 책. p.56-57

### 3.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자는 교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이 학생들에게 음악교과의 성취도 및 흥미도 부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선행 연구 된 논문 중에는 음악활동의 경험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과 음악활동의 경험이 음악 교과 수업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된 논문을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목적과 주제라고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문선미(2008)는 “음악 사교육이 음악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음악 사교육이 음악 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음악 사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재검토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사교육의 경험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 유무에 따라 기악과 창작 영역에서 높은 음악적 성취를 보였으며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업 성적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학업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음악 사교육 경험은 이른 시기에 시작할수록, 경험 기간이 길수록 가창 및 기악 성적에서 높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음악적으로 성숙한 연주자의 감상을 통한 소극적 음악활동보다는 다소 서툴지만 ‘소리’를 직접 연주하는 능동적 음악활동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평균 연령인 7세보다 어린 5세 이하의 학생들에게서 실제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악 사교육 유형 중 학원 및 방과 후 특기적성의 유형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음악 사교육 활동을 통해 음악 교과 뿐 만 아니라 타 교과 성적과의 상관성도 증명하였으나 타 교과의 성취도에 작용하는 변인이 음악 사교육만으로 본 점은 아쉬웠다. 그러나 음악 사교육을 통해 음악적 성취가 가능하며 음악적 성취와 음악에 대한 흥미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음악 활동의 영역중 가창과 기악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개인지도 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교육적인 분위기를 함께할 수 있는 그룹지도를 선호한 점이 흥미로웠다.

왕수연(2009)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음악적성, 음악성취,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에서 연구 문제를 크게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후의 변화’와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음악흥미, 음악성취, 음악적성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청소년들 중 68.8%의 학생들은 교회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46.6%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흥미도를 비교한 결과 흥미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참여도, 관심도, 태도 및 가치관, 자신감의 모든 영역에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성취도 문항의 집단별 정답률에서 모든 문항의 정답률이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음악적성을 비교한 결과 리듬과 가락의 평균에서 모두 음악활동 집단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총점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이 비활동 집단에 비해 3점 가량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섯째, 음악활동을 경험한 기간에 따른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흥미도와 성취도에서 p값이 각각 .028과 .035로 측정되어 모두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세 가지 변인인 음악적성, 음악성취, 음악흥미가 교회음악활동이라는 비형식적 음악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밝히는 논문으로 각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려준 점이 흥미로웠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음악 흥미도와 성취도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으며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운경(2009)은 “음악경험 · 음악성 ·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경험 현황 및 음악경험과 음악성, 학업성적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음악경험 현황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음악 사교육과 특별활동 모두 1가지 종류만 경험했다는 답변이 많았고, 경험기간은 음악 사교육은 2~3년 이하(40.1%), 특별활동은 1년 이하(47.0%)가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음악적 환경은 ‘음악프로그램 시청(청취) 정도’에 대한 문항

의 답변(67.6%)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음악 사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을 시작하는 학생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특별활동은 증가하였다.

셋째, 특별활동을 경험한 학생들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한 특별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음악경험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 음악경험의 하위변인은 ‘시작시기’였다.

다섯째, 음악성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 음악성의 하위변인은 ‘가락’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경험의 수준은 음악성 및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음악경험은 어린 시기에 이루어질 때, 체계를 갖출 때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경험의 합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11과목 모두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과의 학업성적 평균의 차이가 큰 과목이 영어, 수학, 과학 순이었던 점이 흥미로웠다.

백민재(2004)는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에 관한 정도를 측정하고 학년간 차이, 남학생, 여학생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 및 청음성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두 높게 나왔으며 가창 성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 가창성취도의 학년간 차이는 없었으며 청음성취는 학년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전체 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는 .7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창과 음악성취도, 청음과 음악성취도 또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청음이 가창보다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약간 높다.

이 연구를 통해 중학교 2, 3학년의 학년에 따른 음악 흥미와 음악성취, 가창성취는 차이가 없었으나 청음은 학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음악 흥미와 음악성취, 가창과 청음성취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도 차이의 원인을 통해 지도 방법을 달리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보숙(2005)은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를 통해 음악 사교육 경험과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음악 성취도는 높은 반면 흥미도는 떨어진다.

둘째, 음악 사교육 기간이 긴 아동이 음악 사교육 기간이 짧은 아동에 비하여 음악적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도는 떨어진다.

셋째, 음악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 흥미도가 떨어진다. 즉, 음악 사교육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성취도는 높지만 반대로 흥미도에서는 음악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사교육 기간이 짧은 아동, 초등학교 입학 후에 사교육을 시작한 아동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 사교육이 기능적인 면이나 이해의 부분에서는 교

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동의 음악적 흥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과 음악 사교육 경험의 기간이 짧은 아동이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은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연구자의 의견과 같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기능습득 형태의 음악 사교육은 아동에게 흥미를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성애(2000)는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를 통해 음악적성, 음악흥미, 지능이 음악성취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다.

둘째,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음악적성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음악성취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음악흥미이다.

넷째, 음악성취도와 지능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다섯째, 음악성취도 검사 점수의 남녀간 평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적성, 음악흥미, 음악성취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음악교육에 있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 된 논문을 살펴 본 결과 교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의 경험이 음악교과의 성취도 뿐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흥미도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의 유무와 기간, 시작한 시기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B'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 128명, 여학생 135명으로 총 263명이다.

#### 2. 연구 도구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로는 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와 음악 흥미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는 크게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로 나누었으며 경험의 유·무에 관한 이유와 활동유형 및 기간, 활동을 이어나갈 여부 등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음악 흥미 검사지는 배성애(2000)의 '음악흥미검사'와 조은경(2002)의 '음악흥미도측정', Show와 Tomcala(1976)가 제작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의 '음악수업에 대한 태도 조사표'를 기초로 지도교수님과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총 25문항이다.

문항의 1번부터 7번까지는 음악수업과 관련한 질문이며 8번부터 12번까지는 음악 감상에 대한 흥미도, 13번부터 16번까지는 음악 활동에 대한 흥미도, 17번과 18번은 장래 음악과 관련한 직업에 대한 흥미도, 19번부터 21번까지는 음악 이해에 대한 흥미도, 22번부터 24번까지는 음악장르에 대한 흥미도, 마지막 25번은 음악을 접하는 기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를 활용하였으며 음악 흥미 검사지의 영역별 구분은 다음의 <표Ⅲ-1>과 같다.

<표Ⅲ-1> 음악 흥미 검사지의 항목별 문항번호

문항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수업관련 흥미도	1번-7번	7
음악 감상 관련 흥미도	8번-12번	5
음악 활동 관련 흥미도	13번-16번	4
음악 직업 관련 흥미도	17번, 18번	2
음악 이해 관련 흥미도	19번-21번	3
음악 장르 관련 흥미도	22번-24번	3
기타	25번	1

음악과목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실시한 1학기 ‘가창1’, ‘가창2’, ‘기악’ ‘학습과정(태도)’ 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를 자료로 하였으며 지필평가 점수는 1학기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의 평균 성적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연구 절차

연구의 진행은 설문조사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각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를 7월 12일에 배부하여 7월 21일에 회수하였으며 음악 담당 선생님 으로부터 각 학생들의 학업 성적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았다.

#### 4. 연구 분석 및 방법

##### 1) 설문지 집계 방법

한 학생이 여러 음악 활동을 경험한 경우 경험한 각각의 종류 별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집계 및 통계처리 시 다음의 방법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 (1) 경험의 종류 : 중복답변

학생들이 어떠한 음악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각각의 데이터로 처리하였다.

##### (2) 경험의 기간 : 각 경험기간의 합

학생들이 음악경험의 노출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경험한 경우라도 모든 경험의 기간의 합을 집계하였다.

##### (3) 경험의 현재진행여부 : 하나라도 '예'인 경우 '예'로 처리

학생들이 현재 음악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라도 '예'로 답한 경우 모두 '예'로 처리하였다.

(4) 흥미도 문항 배점 : 백분율로 계산

각 문항 당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총 0점부터 100점까지 백분율로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 2) 통계처리 방법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음악 성취도, 음악 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였으며 음악 활동 경험의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을 구분한 뒤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초 자료 분석

#### 1)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표IV-1>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 (n = 263)

	빈도	백분율
유경험집단	197	74.9%
무경험집단	66	25.1%
합계	263	100%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를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위의 <표IV-1>과 같이 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263명의 학생 중 197명으로 74.9%에 해당하며, 어떠한 음악 활동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66명으로 25.1%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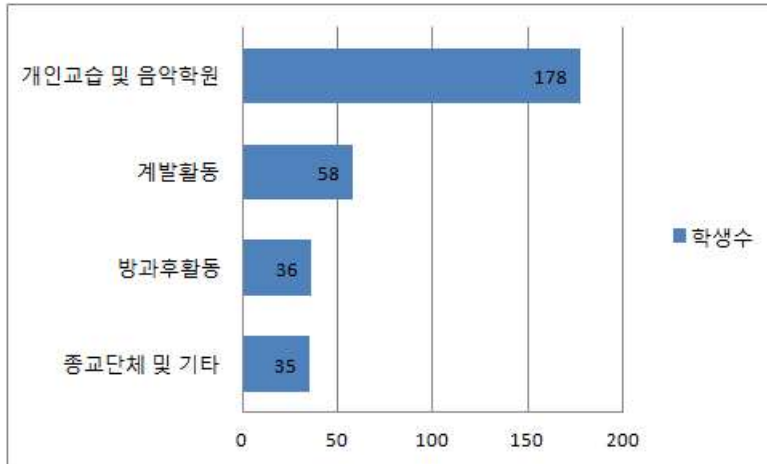
## 2) 음악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

### (1) 음악활동 유형

<표IV-2> 음악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활동	빈도	백분율(%)
계발활동	58	18.89
방과후활동	36	11.73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	178	57.98
종교단체 및 기타	35	11.40
합계	307	100.00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주관하는 곳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위의 <표 IV-2> 와 같이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이 178명(5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발활동 58명(18.89%), 방과후활동 36명(11.73%), 종교단체 및 기타 35명(11.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활동 유형별 학생 비율

(2) 음악 활동 기간

<표 IV-3> 음악 활동 유형별 활동 기간

	계발활동	방과후 활동	개인교습및 학원	종교단체활 동 및 기타
1년 미만	25	19	30	16
1년 이상-3년 미만	24	10	64	3
3년 이상-7년 미만	9	6	72	13
7년 이상	0	1	12	3
합계	58	36	178	35

학생들의 음악 활동의 유형별 활동 기간을 알아 보기 위한 질문으로

위의 <표IV-3> 과 같이 계발활동은 58명중 1년미만이 25명, 1년 이상-3년 미만은 24명, 3년 이상-7년 미만은 9명, 7년이상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활동은 36명중 1년미만이 19명, 1년 이상-3년 미만은 10명, 3년 이상-7년 미만은 6명, 7년이상은 1명으로 나타났다.

개인교습 및 학원은 178명중 3년 이상-7년 미만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64명, 1년미만이 30명, 7년이상인 12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종교단체 활동 및 기타는 35명중 1년미만이 16명, 3년 이상-7년 미만이 13명, 1년 이상-3년 미만, 7년이상인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 (3) 악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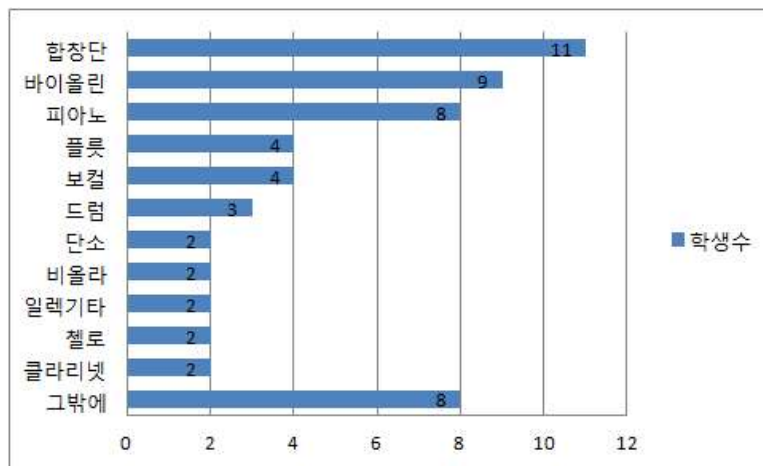
학생들이 경험한 악기(성악포함)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배우고 있거나 과거에 배웠던 악기(성악포함)를 모두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음악활동에서 경험한 악기는 다음 <표IV-4>와 같다.

<표IV-4> 계발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합창단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보컬	드럼	단소	비올라	일렉기타	첼로	클라리넷	그밖에	합계
빈도	11	9	8	4	4	3	2	2	2	2	2	8	57
	19.	15.	14.	7.0	7.0	5.3	3.5	3.5	3.5	3.5	3.5	14.	100
	3%	8%	0%	%	%	%	%	%	%	%	%	4%	%

계발활동에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하여 총 57명 중 합창단활동이 11명 (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올린9명(15.8%), 피아노8명(14.0%), 플룻, 보컬, 드럼이 각각 4명(7.0%), 4명(7.0%), 3명(5.3%), 단소, 비올라, 일렉기타, 첼로, 클라리넷이 각각 2명(3.5%)의 학생이 답변하였으며 그밖에 건반, 리코더, 기타, 베이스기타, 사물놀이, 음악감상, 팀파니, 호른으로 각각 1명(1.8%)로 나타났다. 또한 계발활동을 한 57명의 학생 중 전통악기에 대한 경험자는 3명으로 서양 악기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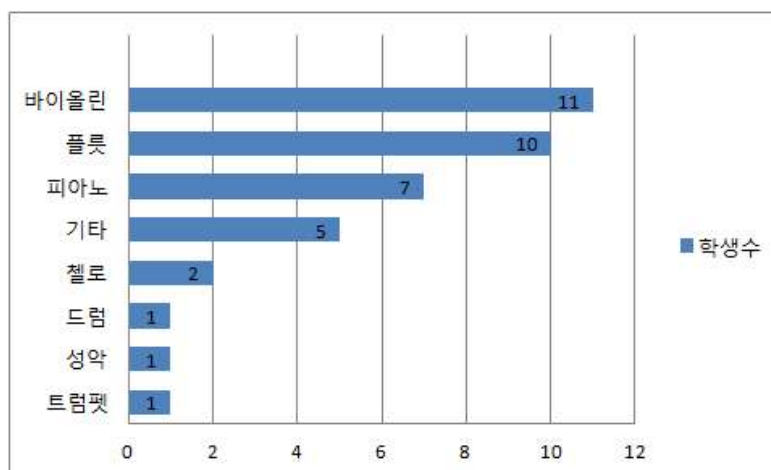


<그림 IV-2> 계발 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표IV-5> 방과후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기타	첼로	드럼	성악	트럼펫	합계
빈도	11	10	7	5	2	1	1	1	38
	28.9%	26.3%	18.4%	13.2%	5.3%	2.6%	2.6%	2.6%	100%

위의 <표IV-5>와 같이 방과후활동에서는 바이올린이 38명중 11명(28.9%),플룻이 10명(26.3%), 피아노가 7명(18.4%), 기타 5명(13.2%), 첼로 2(5.3%), 드럼, 성악, 트럼펫이 각각 1명씩(2.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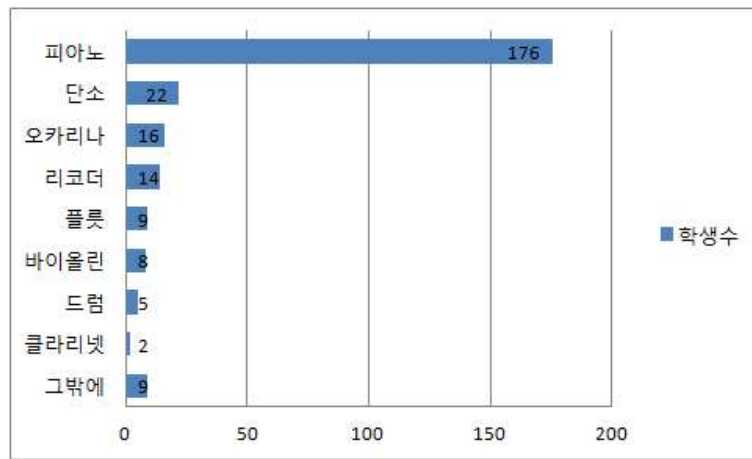


<그림IV-3> 방과후활동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표Ⅳ-6>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피아노	단소	오카리나	리코더	플룻	바이올린	드럼	클라리넷	그밖에	합계
빈도	176	22	16	14	9	8	5	2	9	261
	67.4%	8.4%	6.1%	5.4%	3.4%	3.1%	1.9%	0.8%	3.5%	100%

위의 <표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에서의 종류로는 261명중 피아노가 176명(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소 22명(8.4%), 오카리나 16명(6.1%), 리코더 14명(5.4%), 플룻 9명(3.4%), 바이올린 8명(3.1%), 드럼 5명(1.9%), 클라리넷 2명(0.8%), 그밖에 사물놀이, 우크렐레, 첼로, 킥플룻, 일렉기타, 통기타, 베이스기타, 하모니카로 각각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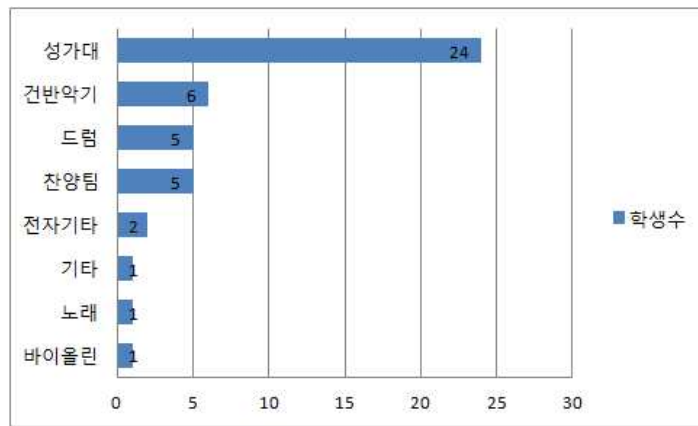


<그림Ⅳ-4>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표Ⅳ-7> 종교단체활동 및 기타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악기	성가대	건반악기	드럼	찬양팀	전자기타	기타	노래	바이올린	합계
빈도	24	6	5	5	2	1	1	1	45
	53.3%	13.3%	11.1%	11.1%	4.4%	2.2%	2.2%	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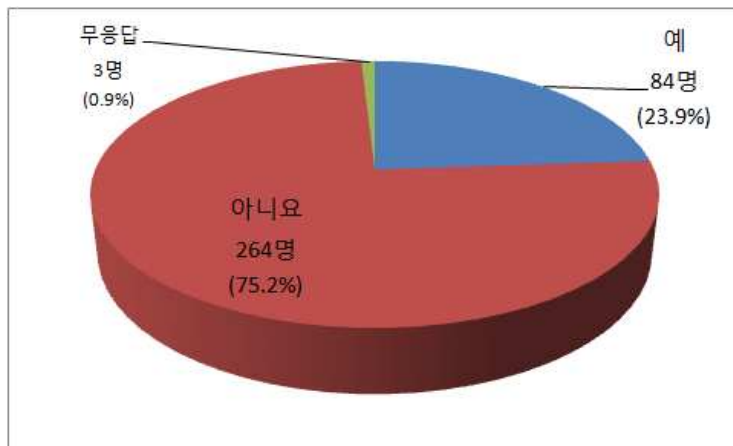
위의 <표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단체활동에서의 경험의 종류는 45명 중 성가대가 24명(53.3%)로 가장 많았으며, 건반악기 6명(13.3%), 드럼, 찬양팀 각각 5명(11.1%), 전자기타 2명(4.4%), 기타, 노래, 바이올린은 각각 1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Ⅳ-5> 종교단체활동 및 기타 경험의 종류 (중복답변)

(4) 음악 활동 유형별 현재 진행 여부 및 이유

현재도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 351명 중 현재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84명(23.9%), 활동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264명 (75.2%), 무응답 3명(0.9%)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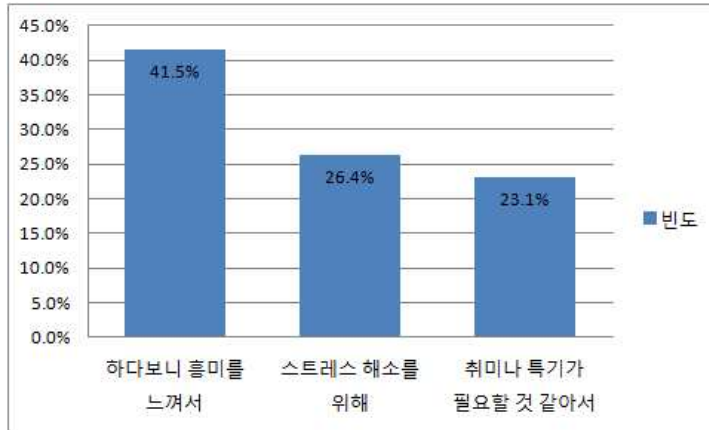


<그림 IV-6> 음악 활동 유형별 진행 여부

<표IV-8> 유형별 음악 활동진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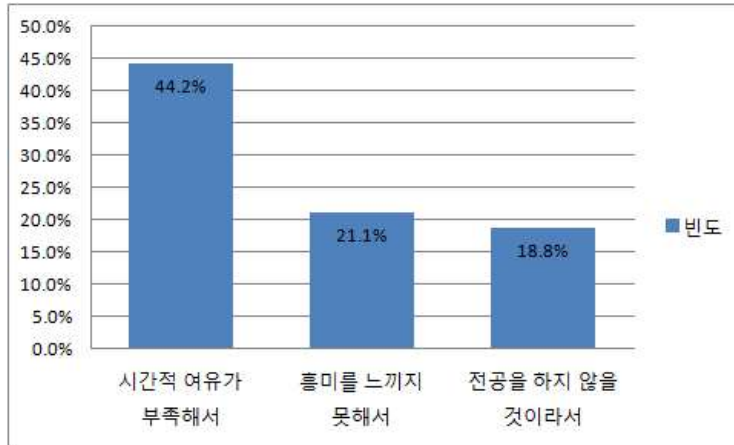
활동	빈도(명)	활동 진행 (명)
계발활동	58	23 (39.65%)
방과후활동	36	13 (36.11%)
개인교습 및 학원	178	28 (15.73%)
종교단체 및 기타	35	14 (40.00%)

음악활동 유형별 진행여부를 살펴보면 위의 <표IV-8>과 같이 계발활동을 하는 58명의 학생중 23명이 현재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은 36명중 13명이, 개인교습 및 학원은 178명중 28명이, 종교단체 및 기타는 35명 중 14명으로 개인교습 및 학원에서의 음악 활동이 많은 것에 비해 적은 수가 유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음악 활동 유지 이유

위의<그림 IV-7>과 같이 현재 음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1순위는 ‘하다 보니 흥미를 느껴서’가 41.5%였으며, 2순위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가 26.4%, 3순위는 ‘취미나 특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가 23.1%, 그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다른 악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아서’, ‘음악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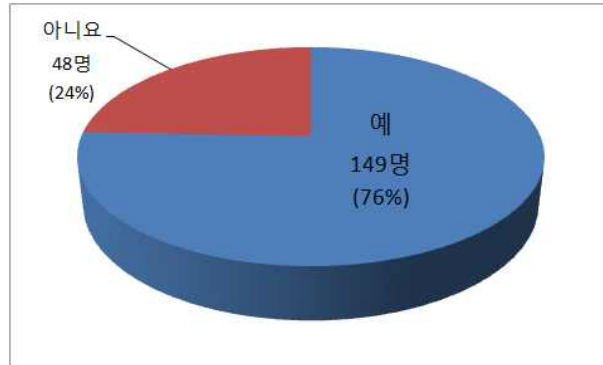


<그림 IV-8> 음악 활동 그만둔 이유

반면 활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 위의<그림 IV-8>과 같이 1순위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가 21.1%, 3순위로는 ‘전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가 1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학과 이사 문제’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것을 배우기 위해’가 3명, ‘활동부서가 없어져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악기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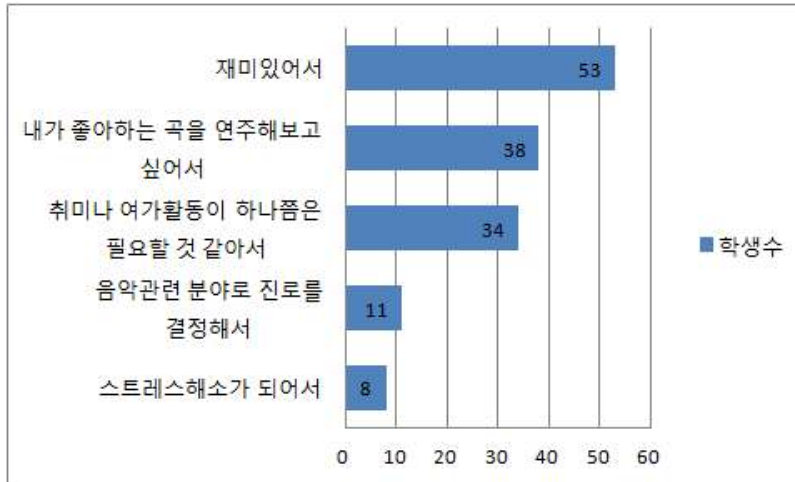
(5) 음악 활동 유형별 앞으로의 진행 희망 여부 및 이유



<그림 IV-9> 음악 활동 앞으로 진행 희망 여부

현재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혹은 경험하였던) 음악활동을 계속(더)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위의<그림 IV-9>를 살펴보면 계속(더) 활동하고 싶다고 답변한 학생은 197명중 149명으로 75.6% 이며, 계속(더)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은 48명 24.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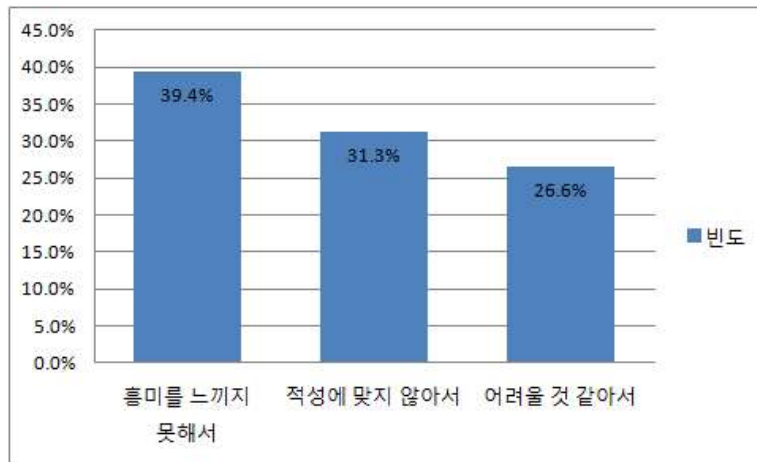
또한 음악 활동을 앞으로 계속(더)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아래 <그림 IV-10>과 같이 ‘재미있어서’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 해 보고 싶어서’가 25.5%, ‘취미나 여가 활동이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아서’가 22.8%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다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학교에서 악기연주 할 때 도움이 되어서’, ‘악기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앞으로의 음악활동 지속 희망 이유

### 3) 음악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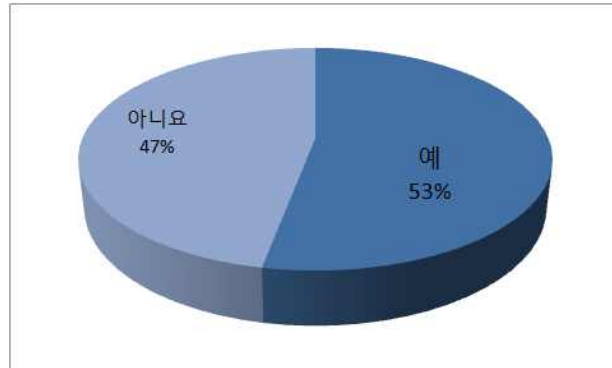
#### (1)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그림 IV-11> 음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학교 수업 외에 음악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위의 <그림 IV-11>과 같이 1순위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39.4%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가 31.3%, 3순위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 26.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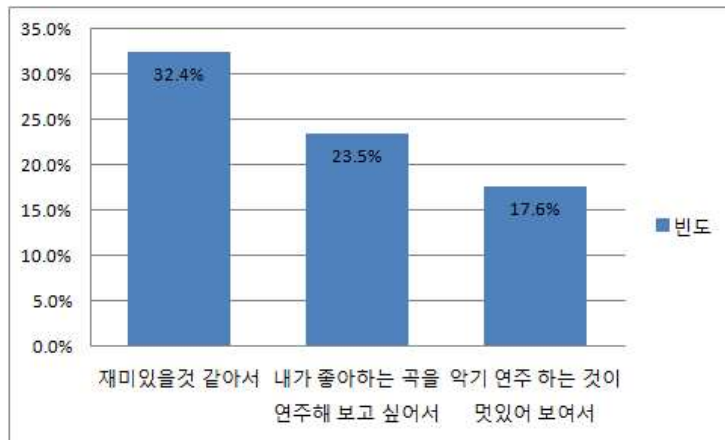
(2) 음악 활동 희망 여부 및 이유



<그림 IV-12> 음악활동 무경험 집단 중 음악 활동 희망 여부

학교 수업 외에 음악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음악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활동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위의 <그림 IV-12>와 같이 음악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53%, 희망하지 않은 학생은 47%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아래<그림 IV-13>과 같이 ‘재미 있을 것 같아서’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 해 보고 싶어서’가 23.5%, ‘악기 연주 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가 17.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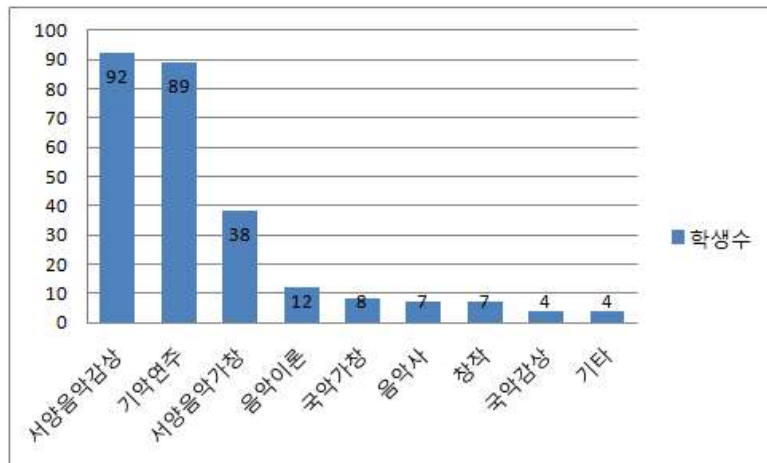


<그림 IV-13> 기회가 된다면 음악활동을 희망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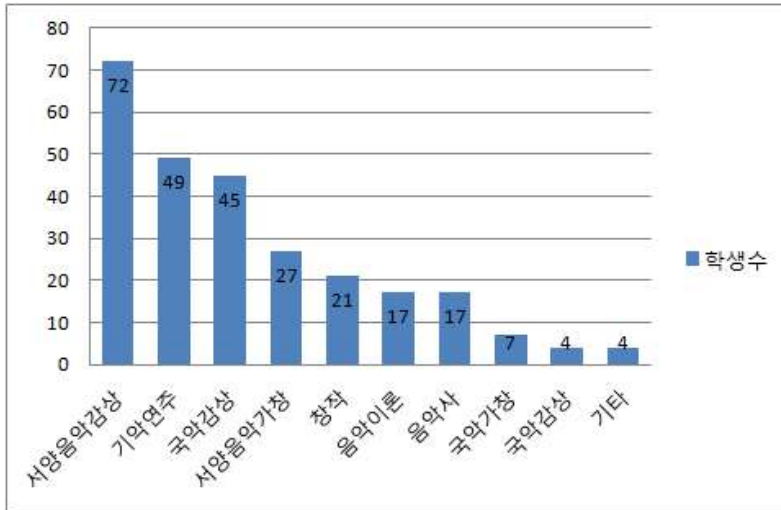
#### 4) 흥미도

##### (1) 음악 수업 중 흥미를 느끼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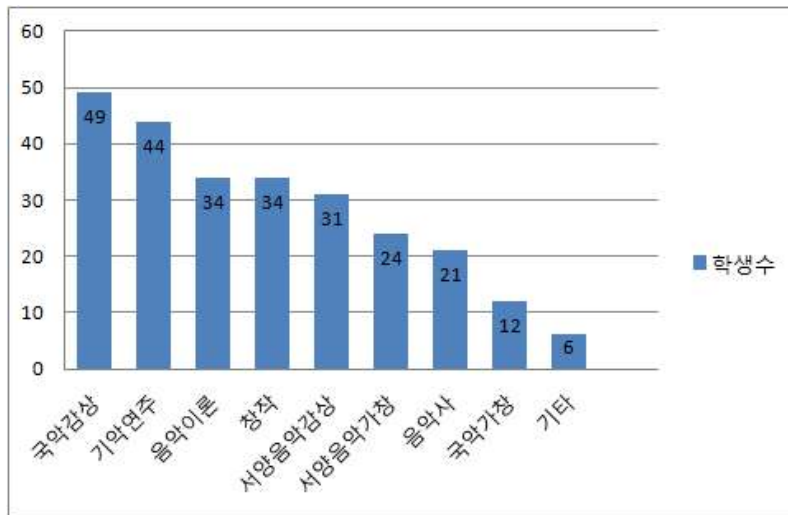
음악 수업 영역 중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1순위는 ‘서양 음악 감상’ 이 35.2%, ‘기악 연주’ 가 34.1%, ‘서양 음악 가창’이 14.6%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서양 음악 감상’ 이 27.8%, ‘기악 연주’ 가 18.9%, ‘국악 감상’ 이 17.4% 로 나타났다. 3순위는 ‘국악감상’ 이 19.2%, ‘음악이론’ 과 ‘창작’ 이 13.2%, ‘서양 음악 감상’ 이 12.2%로 나타났으며 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아래의 <그림 IV-14>, <그림 IV-15>, <그림 IV-16>과 같다.



<그림 IV-14> 음악 수업 흥미 영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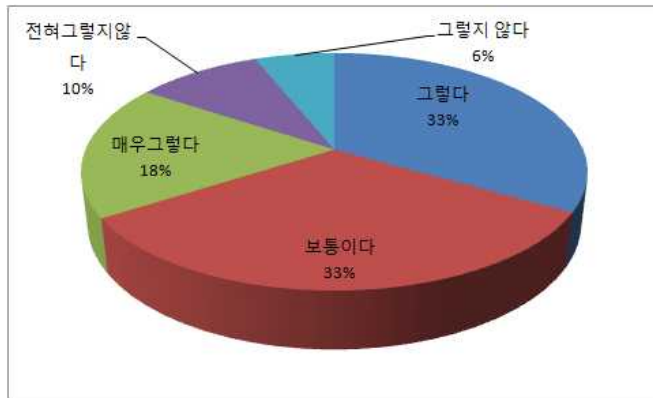


<그림 IV-15> 음악 수업 흥미 영역 2순위



<그림 IV-16> 음악 수업 흥미 영역 3순위

(2) 음악 활동이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



<그림 IV-17> 음악활동이 음악 수업에 미치는 영향

활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학생에게 음악활동이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위의<그림 IV-17>과 같이 ‘그렇다’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2.6%, ‘매우 그렇다’가 18.4%, ‘전혀 그렇지 않다’가 9.6%, ‘그렇지 않다’가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활동이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과반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2. 음악활동 경험과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 1) 활동 유무에 따른 음악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표IV-9> 경험 유무와 음악 학업성취도의 관계

	활동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p
중간고사	유경험집단	196	75.40	17.680	7.291	.000
	무경험집단	66	56.70	19.037		
기말고사	유경험집단	196	69.80	21.890	7.719	.000
	무경험집단	66	45.90	21.302		

p<.05

위의 <표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교과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면 음악 활동 유경험집단의 ‘중간고사’ 평균은 75.40, 표준편차 17.680으로 나타났고, 무경험집단의 ‘중간고사’ 평균은 56.70, 표준편차는 19.037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중간고사’ 성적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이므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교과 학업 성취도(기말고사)를 살펴 보면 음악활동 유경험집단의 ‘기말고사’ 평균은 69.80, 표준편차 21.890으로 나타났고, 무경험집단의 ‘기말고사’ 평균은 45.90, 표준편차21.302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기말고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말고사’ 성적은 음악활동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음악 활동 유무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역별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표IV-10> 음악 활동 유무와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활동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p
가창1	유경험집단	196	18.19	1.507	3.191	.002
	무경험집단	66	17.50	1.591		
가창2	유경험집단	196	25.53	2.595	3.975	.000
	무경험집단	66	24.08	2.464		
기악	유경험집단	196	28.47	2.120	7.744	.000
	무경험집단	66	25.95	2.709		
학습과정 (태도)	유경험집단	196	19.73	.630	3.804	.000
	무경험집단	66	19.44	.966		

p<.05

위의 <표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 수행 성취도를 살펴보면 음악활동 유경험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은 18.19, 표준편차 1.507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은 17.50, 표준편차 1.591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2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창2’의 경우 유경험집단의 평균은 25.53, 표준편차 2.595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집단의 ‘가창2’ 수행평가 평균은 24.08, 표준편차 2.464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창2’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가창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악’의 경우 유경험집단의 수행평가 평균은 28.47, 표준편차 2.120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집단의 ‘기악’ 수행평가 평균은 25.95, 표준편차 2.709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기악’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과정(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악활동 유경험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은 19.73, 표준편차 .635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은 19.33, 표준편차 .96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0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앞서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표IV-11>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활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p
중간고사	1년 미만	32	62.58	18.015	.068
	1년이상-3년미만	65	73.66	18.315	.000
	3년이상-7년미만	73	79.26	16.342	.000
	7년이상	27	81.19	13.488	.000
기말고사	1년 미만	32	55.16	22.450	.057
	1년이상-3년미만	65	68.31	21.181	.000
	3년이상-7년미만	73	73.84	20.233	.000
	7년이상	27	79.26	18.847	.000

위의 <표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에서 ‘중간고사’의 경우 1년 미만이 평균 62.58점, 1년 이상-3년미만이 73.66점, 3년이상-7년미만이 79.26점, 7년이상 81.19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음악 ‘중간고사’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 < .05$ )

‘기말고사’의 경우 1년 미만이 평균 55.16점, 1년이상-3년미만이 68.31점, 3년이상-7년미만이 73.84점, 7년이상 79.26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음악 ‘기말고사’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 < .05$ )

위의 결과에 대하여 <표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활동 기간의

합과 음악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간고사는  $r=.210$ , 기말고사는  $r=.238$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2> 음악활동 기간합과 음악 학업성취도 상관관계

	N	음악활동 기간과의 상관관계	p
중간고사	159	.210**	.008
기말고사	159	.238**	.002

\* $p<.05$     \*\* $p<.01$

4)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교과 영역별 수행성취도 상관관계

<표IV-13>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음악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활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p
가창1	1년 미만	32	17.72	1.631	.469
	1년이상-3년미만	65	18.18	1.391	.013
	3년이상-7년미만	73	18.25	1.489	.008
	7년이상	27	18.70	1.589	.001
가창2	1년 미만	32	24.69	2.657	.257
	1년이상-3년미만	65	25.31	2.404	.002
	3년이상-7년미만	73	25.52	2.489	.000
	7년이상	27	27.07	2.688	.000
기악	1년 미만	32	26.94	3.182	.047
	1년이상-3년미만	65	28.15	2.145	.000
	3년이상-7년미만	73	29.05	1.311	.000
	7년이상	27	29.44	.698	.000
학습과정 (태도)	1년 미만	32	19.66	.602	.110
	1년이상-3년미만	65	19.75	.501	.004
	3년이상-7년미만	73	19.75	.683	.000
	7년이상	27	19.70	.823	.022

p<.05

위의 <표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영역별 음악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에서 ‘가창1’의 경우 1년미만은 평균 17.72점, 1년이상-3년미만이 18.18점, 3년이상-7년미만이 18.25점, 7년이상인 18.70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가창1’의 수행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활동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05$ )

‘가창2’의 경우 1년미만은 평균 24.69점, 1년이상-3년미만이 25.31점, 3년이상-7년미만이 25.52점, 7년이상인 27.07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가창2’의 수행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활동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05$ )

‘기악’의 경우 1년미만은 평균 26.94점, 1년이상-3년미만이 28.15점, 3년이상-7년미만이 29.05점, 7년이상인 29.44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기악’의 수행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간의 길이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05$ )

‘학습과정(태도)’의 경우 1년미만은 평균 19.66점, 1년이상-3년미만이 19.75점, 3년이상-7년미만이 19.75점, 7년이상인 19.70점으로 음악 활동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 보다 1년이상-3년미만의 경우가 수행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1년이상-3년미만의 경우와 3년이상-7년미만의 수행성취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7년이상인 경우는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 활동 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p<.05$ )

이처럼 ‘기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음악 수행성취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과정(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음악

수행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14> 음악 활동 기간과 음악 교과 영역별 수행성취도 상관관계

	N	음악활동 기간과의 상관관계	p
가창1	159	.157*	.049
가창2	159	.226**	.004
기악	159	.302**	.000
학습과정	159	.074	.356

\*p<.05    \*\*p<.01

위의 결과에 대하여 위의 <표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활동 기간의 합과 음악 수행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창1은  $r=.157$ , 가창2는  $r=.226$ , 기악은  $r=.302$ , 학습과정은  $r=.074$  로 기악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창1, 가창2는 약한 상관관계, 학습과정은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현재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표IV-15> 음악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

	활동진행여부	N	평균	표준편차	p
중간고사	유지집단	53	80.45	14.329	.026
	비유지집단	144	73.55	18.403	
기말고사	유지집단	53	76.89	18.893	.005
	비유지집단	144	67.08	22.341	

위의 <표IV-15>와 같이 음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활동을 유지하지 않고 그만 둔 집단의 음악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중간고사’ 평균은 80.45, 표준편차 14.329로 나타났고, 비유지집단의 ‘중간고사’ 평균은 73.55, 표준편차는 18.40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중간고사’ 성적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26이므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고사’의 경우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기말고사 평균은 76.89, 표준편차 18.893으로 나타났고, 비유지집단의 ‘기말고사’ 평균은 67.08, 표준편차는 22.341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기말고사’ 성적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5이므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 활동의 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서도 현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현재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표IV-16> 음악 활동 진행 여부에 따른 수행성취도 차이 검증

	활동진행여부	N	평균	표준편차	p
가창1	유지집단	53	18.72	1.406	.003
	비유지집단	144	18.01	1.505	
가창2	유지집단	53	26.34	2.814	.011
	비유지집단	144	25.23	2.443	
기악	유지집단	53	28.85	1.758	.103
	비유지집단	144	28.33	2.221	
학습과정 (태도)	유지집단	53	19.68	.754	.815
	비유지집단	144	19.75	.585	

위의 <표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유지에 따른 음악 수행 성취도를 살펴보면 현재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은 18.72, 표준편차 1.406으로 나타났으며, 비유지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은 18.01, 표준편차 1.505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창1’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03으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창2’의 경우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평균은 26.34, 표준편차 2.814로 나타났으며, 비유지집단의 ‘가창2’ 수행평가 평균은 25.23, 표준편차 2.44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가창2’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011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가창1’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악’의 경우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수행평가 평균은 28.85, 표준편차 1.758로 나타났으며, 비유지집단의 ‘기악’ 수행평가 평균은 28.33, 표준편차 2.221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기악’ 수행평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103으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음악 활동 유지집단과 비유지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과정(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악 활동 유지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은 19.68, 표준편차 .754로 나타났으며, 비유지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은 19.75, 표준편차 .585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학습과정(태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검정 통계량의 유의도 값이 .815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기악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음악 활동 유지집단과 비유지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창1’과 ‘가창2’는 음악 활동의 유무 뿐 만 아니라 현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악’과 ‘학

습과정(태도)'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3. 음악활동 경험과 음악 흥미도의 상관관계

#### 1) 음악 활동 유무에 따른 음악 흥미도의 차이 검증

<표IV-17> 음악 활동 유무에 따른 흥미도 영역별 차이 검증

문항 내용	번호	집단	점수	표준 편차	t	p
수업관련 흥미도	1-7번	유경험집단	16.49	5.756	5.628	.000
		무경험집단	11.80	6.132		
음악 감상관련 흥미도	8-12번	유경험집단	13.16	4.306	2.851	.005
		무경험집단	11.32	5.165		
음악활동 관련 흥미도	13-16번	유경험집단	9.40	4.054	5.733	.000
		무경험집단	6.08	4.126		
음악직업 관련 흥미도	17, 18번	유경험집단	3.37	2.474	3.481	.000
		무경험집단	2.20	2.025		
음악 이해 관련 흥미도	19-21번	유경험집단	5.00	2.952	3.570	.000
		무경험집단	3.50	2.963		
음악장르 관련 흥미도	22-24번	유경험집단	6.58	2.571	4.366	.000
		무경험집단	4.95	2.776		
기타	25번	유경험집단	1.92	1.169	2.825	.005
		무경험집단	1.45	1.166		

위의 <표IV-17>에서와 같이 흥미도 설문지의 1번에서 7까지의 질문은 음악 수업과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 0점에서 28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16.49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11.80점, 유의값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지의 8번부터 12번까지의 질문은 음악 감상과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 0점에서 20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13.16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11.32점, 유의값 .0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지의 13번부터 16번까지의 질문은 음악 활동과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 0점에서 16점 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9.40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6.08점, 유의값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지의 17번과 18번의 질문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0점에서 8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3.37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2.20점, 유의값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지의 19번에서 21번까지의 질문은 음악의 이해에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 0점에서 12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5.00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3.50점, 유의값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지의 22번부터 24번까지의 질문은 음악 장르와 관련한 흥미도에 대한 질문으로 총 0점에서 12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6.58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4.95점, 유의값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 25번은 가정에서 대중음악을 제외한 음악을 접하는 기회에 대한 질문으로 0점에서 4점까지 계산하여 유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의 평균은 1.92점, 무경험집단의 흥미도 점수 평균은 1.45점, 유의값 .0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흥미도의 7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내며 음악활동과 음악 흥미도는 유의미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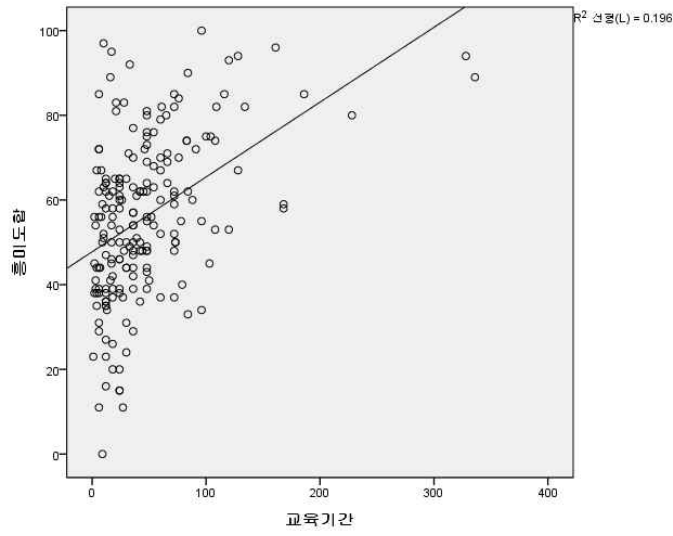
## 2)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흥미도의 상관관계

<표IV-18> 음악 활동기간에 따른 흥미도의 상관관계

	N	음악활동 기간과의 상관관계	p
흥미도합	263	.418**	.000

\*p<.05    \*\*p<.01

위의 <표IV-18>과 같이 전체 학생 263명 중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197명의 음악 활동 기간의 총 합과 흥미도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r=.418$ , 유의값 .000으로 음악 활동의 기간이 흥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 활동 기간과 흥미도 점수의 합의 분포도는 아래의 <그림IV-18>과 같다.



<그림 IV-18> 음악 활동기간에 따른 흥미도의 상관관계

#### 4. 음악 흥미도와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표IV-19> 음악 흥미도와 음악 교과 성취도의 상관관계

	N	흥미도합과의 상관관계	p
중간고사	263	.313**	.000
기말고사	263	.247**	.000
가창1	263	.298**	.000
가창2	263	.330**	.000
기악	263	.303**	.000
학습과정 (태도)	263	.131*	.033

\*p<.05    \*\*p<.01

위의 <표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창2’  $r = .330(p < .01)$ , ‘중간고사’  $r = .313(p < .01)$ , ‘기악’  $r = .303(p < .01)$ , ‘가창1’  $r = .298(p < .01)$ , ‘기말고사’  $r = .247(p < .01)$ , ‘학습과정(태도)’  $r = .131(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기간과 흥미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습과정(태도)’은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활동기간, 학업성취도, 영역별 수행성취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제언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의 체험을 통해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학생의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계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활동 경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 소재 중학교 1학년(n=263)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음악 활동 경험의 유무와 음악 성취도, 음악 흥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 학업 성취도와와의 차이 검증에서 음악 학업 성취도의 하위 변수인 ‘중간고사’ .000, ‘기말고사’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영역별 수행성취도의 하위 변수인 ‘가창1’은 .002, ‘가창2’는 .000, ‘기악’ .000, ‘학습과정(태도)’ .000의 성적 또한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p<.05)

음악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른 흥미도의 차이검증은 전체 설문지의 7가지 흥미영역인 수업 관련, 음악 감상 관련, 음악 활동 관련, 음악 직업 관련, 음악 이해관련, 음악 장르 관련, 기타 에서 각각 .000, .005, .000, .000,

.000, .000, .0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도의 점수 또한 음악 활동의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 $p < .05$ )

흥미도와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가창2’, ‘중간고사’, ‘기악’, ‘가창1’, ‘기말고사’, ‘학습과정(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과정(태도)’을 제외하고 활동기간, 학업성취도, 영역별 수행성취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r = .330$ ,  $r = .313$ ,  $r = .303$ ,  $r = .298$ ,  $r = .247$ ,  $r = .131$ )

또한 활동기간과 흥미도합의 상관관계는  $r = .418(.000)$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활동기간이 흥미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 활동 경험의 설문 결과 계발활동이 58명(18.89%), 방과후활동이 36명(11.73%), 개인교습 및 학원이 178명(57.98%), 종교단체 및 기타가 35명(11.40%)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개인교습 이나 학원등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의 기회를 넓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 프로그램의 계발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악 활동의 악기 종류로는 계발활동에서는 합창단활동이 57명중 11명(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올린9명(15.8%), 피아노8명(14.0%)순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활동에서는 바이올린이 38명중 11명(28.9%), 플루트가 10명(26.3%), 피아노가 7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교습 및 음악학원에서의 261명중 피아노가 176명(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단소, 오카리나, 리코더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활동에서의 경험의 종류는 45명 중 성가대가 24명(53.3%)로 가

장 많았으며, 그밖에 건반악기, 드럼, 찬양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내·외에서의 음악활동은 대부분이 서양악기에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국악기에 대한 관심과 접근의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음악 활동 기간에 따른 학업성적의 상관관계에서 ‘중간고사’는  $r=.21$ , ‘기말고사’는  $r=.24$ 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수행 성취도는 ‘가창1’  $r=.157$ , ‘가창2’  $r=.226$ , ‘기악’  $r=.302$ , ‘학습과정(태도)’  $r=.704$  로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음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악 수행성취도의 경우 ‘학습과정(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창1’, ‘가창2’, ‘기악’ 영역에서 음악 활동 기간이 길수록 음악 수행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p<.05$ ),

넷째, 음악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1순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39.4%) 가 가장 높았으며, ‘적성에 맞지 않아서’(31.3%), ‘어려울 것 같아서’(2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53%,로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32.4%)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 해 보고 싶어서’(23.5%), ‘악기 연주 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수업 이외 외부에서의 음악 활동 경

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경험의 장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생과 가장 밀접한 장소인 학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 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의 대부분은 20개월 정도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음악 활동을 했지만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가 4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음악 활동을 계속 유지 하고 싶다고 답변한 학생은 197명중 149명(56.7%)로 가장 큰 이유로는 ‘재미있어서(35.6%)’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하다 보니 흥미를 느껴서’가 4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흥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흥미를 충족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법, 교재 등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취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권덕원 외 3인(2009).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07). 『음악과교육과정해설서Ⅳ』.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별활동 교육과정』.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김종미(2009).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 빈민촌 청소년을 치유하고  
변화 시키는 음악의 힘』. 한국메세나협의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편(1981).
- 유광찬(2005). 『특별활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이옥형, 이종숙, 임선빈 공저(2005). 『교육심리학』. 서울 : 집문당.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청소년보호법(2009).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현경실(1994).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8  
집 2호. 인천 : 인천대학교.

- Donald J. Grout.(2009). 『서양음악사(상)』. 서울 : 이앤비플러스.
- Erikson E.H.(1902). 『아동기와 사회; Childhood and Society, 1963』.

## 논문

- 광희선(1993). “초등학교 아동의 학원수강과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대학원.
- 김명례(1996).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김성희(2006). “집단음악활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교육대학원.
- 김지연(2008). “관현악합주활동과 청소년정서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교육대학원.
- 박인애(2010). “고대 그리스 음악교육과 사상에 대한 연구 :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영(2002). “합주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 백민재(2004).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성애(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승미(2005). “청소년의 음악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왕수연(2009).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음악적성, 음악성취,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 원주라(2007). “중고등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숙(2004).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숙(2005).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 성취도 및 흥미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경(2004). “청소년 음악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대학원.
- 장승복(2008).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관동대 교육대학원.

- 조운경(2009). “음악경험·음악성·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 황정규(1973). “The Interaction of Short-Term Memory and Instructional Variables on Verbal Ability ”. 박사학위논문. Univ. of Chicago.

## 기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afterschool.sen.go.kr/index.do>
- Edward J. Power, op. cit., p. 140; J. A. Akinpelu, op. cit., p. 151.

## **ABSTRACT**

### **Effects of In- Out School Music Activity's Experiences on Achievements and Interest Levels of the Music Curriculum**

**- Focusing on 1st Grade of Junior High School-**

**ji-hye, Ja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on which effects are influenced to music achievements and interest levels from various music activities having been achieved in-out school and how much correlations are being made at each part, and thus research themes are same as followings.

First, how about correlations between presence of music activity's experiences and music curriculum's achievements? Second, what correlations are existed between presence of music activity's experiences and music interest levels? Third, are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interest levels on the music and achievement of the music curriculum? For this, the study objected total 263 students of 1st grade in 'B' Junior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nd utilized a questionnaire on music experiences for research tools, test papers on interest levels, performance

assessment's records on 'Singing 1,' 'Singing2,' 'Instrumental Music,' and 'Learning process' having been carried out in school together with average grades of first semester's 'interim examination,' 'final examination' as data. In order to do analyses, this study used SPSS win 19.0 program, an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having music activity's experiences got higher records in Interim examination, Final examination, Singing 1, Singing2, Instrumental music, Learning process (Attitudes) than students of not having experiences, and experiencing group showed high records from all ranges of interest levels too. Also, achievements were appeared high as much as interest levels were high.

Second, as a result of questioning experience types of music activities, there were most from private lesson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after-school activities occupied most in music activities having been sustained till now.

Thir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looked all together from paper evaluations (Interim examination and Final examination) and performance achievement's evaluations (Singing1, Singing2, Instrumental music, Learning process) in correlations of study records according to music activity's period, and it could be known that all showed high correlations as much as music activity's period was long besides the case of Learning process.

Fourth, students having not experiences of music activities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do such activities if chances were given with total

53%, and most reasons were like 'it seems to be interesting.'

Fifth, students that hope to continue music activities were 56.7%, and the reason was highest from 'interests,' and also majority students having kept current activities felt 'interests.'

Through this research, it could be known that music experience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chievements and interest levels,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oing music activities was from 'interests.' Therefore, opportunities of music experiences that can be contacted variously and easily have to be made, and musical achievements of students shall become experienced through systematic teaching-learning methods of being able to satisfy interests and textbooks etc.

## <부록1> 음악 활동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음악 활동의 경험여부와 유형 및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음악을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순수한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연구자 장 지 혜

**1학년            반            번    이름 :**

※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세요.

1. 성별 : 남 (      )    여 (      )

2. 학교 정규 음악 수업 이외 음악 활동 (예를 들어 음악관련 계발활동, 방과 후 활동, 개인레슨, 음악학원, 종교 활동 등)을 하거나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      ) 그렇다       **Part 1 로 가세요.**

(      ) 그렇지 않다       **Part 2 로 가세요.**

Part 1 음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1-1 학교 계발 활동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악기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바이올린, 베이스기타 등	활동했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6개월, 1년 등	현재도 활동하고있나요? 예) O, X
학교 계발활동(C.A)	관현악반 ( )			
	밴드반 ( )			
	합창단 ( )			
	음악 감상 ( )			
	그 밖에 ( )			

1-2 학교 방과 후 활동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배웠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6개월, 1년 등	현재도 배우고 있나요? 예) O, X
학교 방과 후 활동	바이올린반 ( )		
	첼로반 ( )		
	플룻반 ( )		
	색소폰반 ( )		
	트럼펫반 ( )		
	피아노반 ( )		
	기타반 ( )		
	가야금반 ( )		
	그 밖에 ( )		

1-3 개인 교습 및 학원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악기이름, 활동 등을 모두 적으세요 예) 피아노, 바이올린, 단소, 오카리나 등	배웠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6개월, 1년 등	현재도 배우고 있나요? 예) O, X
개인교습 및 학원	개인교습 ( )			
	음악학원 ( )			
	문화센터 ( )			
	그룹지도 ( )			
	그 밖에 ( )			

1-4 종교 단체 활동

활동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악기이름,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플루트, 바이올린, 노래 등	활동했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6개월, 1년 등	현재도 배우고 있나요? 예) O, X
종교단체활동 (교회, 성당, 켄 등)	성가대 ( )			
	찬양팀 ( )			
	건반악기반주( )			
	드럼 ( )			
	전자기타 ( )			
	오케스트라 ( )			
	그밖에 ( )			

**1-5 현재도 계속 음악 활동을 유지 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 < 보 기 > —

①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② 남들이 하니까
③ 하다 보니 흥미를 느껴서	④ 학교 음악 성적에 도움이 되어서
⑤ 전공을 하기 위해서	⑥ 선생님이 좋아서
⑦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⑧ 취미나 특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⑨ 인격형성, 정서에 도움이 되어서	⑩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6 예전에 음악 활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웠었지만 현재는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 < 보 기 > —

① 부모님의 반대	②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③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④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⑤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⑥ 전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
⑦ 어려워서	⑧ 연습을 해야 해서
⑨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⑩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3 음악 수업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 < 보 기 > —

① 서양 음악 가창	② 국악 가창
③ 서양 음악 감상	④ 국악 감상
⑤ 음악 이론	⑥ 음악사
⑦ 기악연주	⑧ 창작
⑨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4 개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학교 음악 수업이나 수행평가, 음악 성취도 평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부록1> 음악 흥미도 검사지

음악 흥미도 검사지

1학년      반              번      이름 :

※ 자신의 음악에 대한 행동 및 생각에 가장 적합한 번호에 V표 하세요.

번호	음악 흥미 검사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음악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음악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1	2	3	4	5
3	음악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4	수업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5	음악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집중한다.	1	2	3	4	5
6	학교 수업과목 중 음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음악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1	2	3	4	5
8	기분이 우울 할 때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5
9	MP3나 휴대전화 등에 음악을 넣어 항상 듣고 다닌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이 연주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칭찬과 평가를 한다.	1	2	3	4	5

11	기회가 된다면 음악회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2	영화나 TV를 볼 때 음악도 함께 집중하며 듣는다.	1	2	3	4	5
13	평소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4	계발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에서 음악활동을 선택하고 싶다.	1	2	3	4	5
15	음악활동(오케스트라, 밴드, 성가대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16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17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18	기회가 되면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1	2	3	4	5
19	음악 이론에 대해 잘 알고 싶다.	1	2	3	4	5
20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음악에 관한 도서나 잡지를 즐겨 읽는다.	1	2	3	4	5
22	서양음악만큼 국악에도 관심이 많다.	1	2	3	4	5
23	클래식 보다 대중음악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4	팝송, 뉴에이지, 재즈, 퓨전음악 등 새로운 음악 장르에도 관심이 있다.	1	2	3	4	5
25	가정에서 대중음악을 제외한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많다.	1	2	3	4	5